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한국학교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토요일 오전 9:40-12:50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팔십팔(八十八)일째...
 흑시나 싶어
 엄마는 하얀 쌀(米)로
 밥을 지어놓고
 아직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부릅니다.

“애야,
 밥먹고
 가거라.”



[제 1독서] 이사 55, 10-11
 [화답송] 시편 65(64), 10-11, 12-13, 14(© 루카 8, 8)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영글게 하시나이다. ◎
-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가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
-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띠를 두르나이다. ◎
- 목장들은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환성을 올리며 노래하나이다. ◎

[제 2독서] 로마 8, 18-2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복음] 마태 13, 1-23 <또는 13, 1-9>

주님. 아직 물 속에 잠겨 있는 이들의 영혼을 보살피소서

성가	8시 미사	입당 439	봉헌 221 511	성체 501 506	파견 24
	11시 미사	입당 439	봉헌 221 511	성체 501 506	파견 24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15주일(7월 13일)		연중 제16주일(7월 20일)		연중 제17주일(7월 27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김안토니오(휘)	조례지나(선덕)	이바로로(명국)	황테레사(혜정)	임루카(승원)	전베로니카(진영)
제 1 독서	이바로로(명국)	정요한(석준)	강요한(신호)	이레이몬드(창용)	최베네딕토(환준)	김사비노(영준)
제 2 독서	정스텔라(애리)	문골롬바(지영)	김안젤라(영선)	이베로니카(경란)	최베네딕다(수영)	이골롬바(정연)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좋은 땅 만들기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농사를 짓는 분들의 정성을 보자.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다. 부지런한 농부는 늦가을부터 다음 해 봄에 쓸 양질의 퇴비를 준비한다. 그리고 이른 봄 그 퇴비를 발여기저기에 골고루 던지고 땅을 갈아엎는다. 그렇게 지극 정성으로 기름진 토양을 만들어야 병충해에도 강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땅이 될 수 있다. 자연의 땅은 가꾸지 않으면 버려진 땅이 되고 만다. 아무리 좋은 땅도 계속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 돌밭이 되고 잡초 우거진 가시덤불 밭도 된다.

자랑이 아니라 창피해서 말한다. 요즈음 밭에 물집이 생긴다. 군대에서 행군 때 생긴 물집 외에 생긴 적이 없었는데……. 병원에서 환우들을 찾아 발품을 팔아 이리저리 찾아다니다 보니 생긴 것이다. 창피하지만 언제 이렇게 남을 위해 걸어봤을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의 좋은 씨를 뿌려도 우리가 그 씨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잘 가꾸지 않으면, 내 마음이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아 풍부한 결실을 내지 못한다.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나쁜 땅도 가꾸고 거름을 주면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일단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온갖 영양소가 풍부해,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 되도록 내 마음의 땅을 가꾸어야 한다. 열매를 맺고 안 맺는 것은 그 씨를 가꾸는 자의 자세에 달려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신앙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고 싶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신앙의 밭을 잘 가꾸어야 하리라.

형식적 삶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말없이 최선을 다해 좋은 땅을 가꾸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풍부한 결실을 맺고, 서로가 힘이 되고 기쁨을 주는, 좋은 땅이 넘쳐나는 세상을 건설하면 좋겠다. 서로에게 풍성한 좋은 먹거리를 내어 놓을 수 있는 좋은 땅을 만들도록 노력하자.

정장근 레미지오 신부
교구 병원사목 전담

좋은 땅, 비옥한 땅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매일 신앙의 밭에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야 한다. 정성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이기심, 교만한 마음은 갈아엎고, 완고함과 독불장군의 잡초,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는 모든 것을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우리 각자에게는 좋은 땅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백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매일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사람

요즘 어금니가 불편해져 한 신부님의 소개로 치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신부님의 성서연수생이었다는 옛된 얼굴의 의사선생님은, 항상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 모습이 참 좋습니다. 어느 날은 잇몸에 마취주사를 받고 진료의자에 누워 있는데 의사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신부님! 부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께 치아를 발치하는데 조금 위험한 수술이라 안수를 받고 싶습니다.”

그녀는 제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 네~”

나는 비스듬히 누워 그 선생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바로 종종걸음으로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작은 행동은 참 신선했고 오랫동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느님과 대화를 멈추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특히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느님 말씀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저는 처음 성경의 이 대목을 대했을 때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농부가 무작정 씨앗을 돌밭이나 길바닥, 가시덤불 속에도 뿌린다고 하니깐요. 그러나 당시의 팔레스티나의 농사법은 우리나라와 전혀 달랐습니다. 팔레스티나의 땅은 대체로 바위가 많고, 더운 여름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메마르고 굳은 들판에 먼저 씨앗을 뿌리고, 비가 오면 그때 쟁기질을 해서 땅을 갈아엎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길에 떨어진 씨앗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믿음을 쉽게 포기할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신앙보다 돈과 명예 등 세속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같지만 듣는 이의 마음자세에 따라 그 결과

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인은 당연히 백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어디 그것이 쉬운 일인가요?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많은 씨를 뿌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잣대가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 혹은 친구를 만날 때도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한마디의 ‘말’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바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을 하더라도 실천할 것을 생각하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인 동시에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겸손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매일 같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과연 나의 마음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또한 내가 어떤 말씀의 씨앗을 뿌렸을까요?

허영엽 신부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말씀의 향기

모든 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가톨릭교회 안에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초, 2년 임기의 ‘서울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 회장 소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를 잠깐 소개하자면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서울신문, 연합뉴스, 평화신문, 한국일보, 한겨레 등 신문사 교우회와 가톨릭출판사 등 출판업계에 종사하는 교우들로 구성된 가톨릭출판인교우회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문 출판 분야에 종사하는 교우들은 활자 매체에 그리스도적 가치를 부여하는 사도적 실천을 통하여 복음화와 인간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묵묵히 활동해 왔습니다. 교회 내 모든 단체들이 그렇지만, 직장사목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도 봉사자들의 참여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문사나 출판사 교우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독실하고 자기를 낮추는 봉사자들의 도움 없이는 원활하게 운영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봉사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각자 맡은 업무가 있고, 경쟁이 일상화된 직장에서는 누구라도 십자가 자기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마친 뒤 공동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는 어려움도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을 아끼거나 퇴근 후에 짬짬이 시간을 내어 하느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보면 기쁨과 나눔의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저도 오래전에 한 선배의 손에 이끌려 피정에 참석한 뒤 간간히 협조해오다가, 이 단체의 중요한 직책인 총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주 연락하며 선후배들과 얼굴을 보고 마음을 나누며 오랫동안 활동하다 보니 어느새 형제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존경하던 선배들이 퇴직한 후에는 부족한 제가 단체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는 중요한 행사 준비를 하면서 그 일에 매달리느라 퇴근 후에도 일찍 귀가하는 날이 없을 정도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큰 은총이라고 여기고, 큰 과오 없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준 봉사자들에게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런 계산도 없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계산을 할 줄 모르고 그저 베풀 줄만 압니다. 하느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으로 자

기 삶의 영역에서 때때로 진실한 봉사를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을 추구하고 얻는 데서 온다기보다, 존재 자체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쌓는 행복, 덧붙이는 행복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의 샘으로부터 솟아나는 행복입니다. 봉사가 바로 그런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허약한 신앙은 의심과 방황을 달고 다니지만, 깊은 신앙은 사랑과 봉사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게 작은 봉사를 통해 알게 된 제 생각입니다.

김병각 베드로
경향신문 부장
전 서울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 회장

성경산책(구약)

요나서, 미카서

요나서는 심원한 보편적 메시지를 매우 흥미롭게 이야기하는 귀한 책입니다. 대개 예언서는 신탁이 나열되는 구조이지만, 요나서는 재밌게 잘 짜여진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장면에서 예언자 요나는 저 멀리 니네베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타르시스로 도망갑니다.(요나 1,1-2) 예언자는 동시대인들을 거슬러 고통스러운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개 큰 오해를 받고 소외된 삶을 삽니다. 요나는 아마 그런 운명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인간적 나약함을 보여주는 요나에게 주님은 물고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 “사흘 낮과 사흘 밤을(요나 2,1)” 물고기 배 속에서 보낸 요나는 그 체험을 통해 깊이 회개합니다.(요나 2장) 이제 용기를 얻은 요나의 활약으로 큰 도시 니네베는 회개하고(요나 3장), 요나는 하나님의 자애를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요나 4장)

요나서는 그 자체로 이해하기도 쉽지만, 후대에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요구하는 불신자들의 청을 거절하시며, ‘요나의 표징’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심을 깨닫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마태12,38-42; 16,1-4; 루카 11,29-30)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한 강론에서 요나서의 신학적 핵심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2013년 10월14일 강론) 교황님은 ‘요나 증후군’ (Jonah syndrome)이란 걸보기엔 말끔하고 아무 문제없지만, 실제로 주님을 선포할 열정이 없는 상태라고 하시며, 이를 ‘세탁소의 거룩함’ (holiness at the dry-cleaners)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기적으로 요나가 회개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확신을 갖고 주님을 증거해야 한다고 성찰하였습니다.

한편 미카서는 예언서의 구성을 고전적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단죄의 말씀과 구원의 약속이 규칙적으로 번갈아 등장합니다. 경고, 질타, 신탁, 소송, 논쟁적 화법

등을 다양하게 구사하며 온갖 종교적·정치적 위선자들을 거슬러 신랄하게 지적하는 미카는 강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점은 흔히 아모스서와 비교됩니다.

미카가 활약했던 시대에 남유다의 정치·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고 부패했습니다. 정의와 사랑 보다는 개인의 안위와 이익을 더 생각했기 때문에, 가진 자들과 가난한 이들 사이의 틈은 커지고 불의가 만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미카는 주님의 징벌을 여러 차례 경고합니다. 하지만 미카의 참된 목적은 백성을 참된 회개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주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소중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먼 미래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마을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미카 5,1; 마태 2,6)

주원준 박사
한님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7월 13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계영실	이카타리나(영보)
	연	친정부모님	박데레사
	생	채루카(성우) 생일	채헬렌
	생	정분다(정식)	찬미성가대
	생	김유릿다(정희)	익명
	생	서데레사	익명
	생	임루시아(윤택)	익명
	생	신마태오(현규)	남수산나
	생	이요셉(세강)	염파트리샤
7월 15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생	이아가다(윤자)	익명
7월 16일 수	생	Fr. Pat	채토마스
7월 17일 목	생	조에드워드(용수)	유리디아(윤미)
7월 19일 토	연	염말가리다	염파트리샤
	연	유조형/오옥희	김데레사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93	191	-	284
헌금	\$631	\$1,064.50	-	\$1,695.50

< 교무금 > \$3,215

신우현(5-6) 김영순(6) 김상실(9-10) 정영언(6-7)
 김순이(7) 전숙희(7) 남금지(7) 소명환(7-8)
 부건화(5-6) 정애리(4) 이병열(7) 김승희(7-8)
 천종욱(7) 김종성(5-7) 황정기(7-12) 김승우(5-8)
 조우송(7) 황정희(7) 육승주(7) 정진희(7)
 김용식(7) 이선희(7) 최용일(5-6) 박진영(5-8)
 성동화(7)

< 성소후원금 > \$320

김순이(7) 전숙희(7) 소명환(7-8) 정진희(7)
 최용일(1-12) 김용식(7) 이선희(7)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김관용 \$100

~~~~ 오늘 간식은 김아레 카타리나 가족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 축아예 주세요 ♪♪♪♪

본당의 한국학교 학생들이 재미한국학교 협의회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많은 수상을 하였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세요.

조유진 : 나의 꿈 말하기 대회 금상  
주미대사 표창장 수상

정송은 : 백범일지 독후감 대회 장려상

이해원 :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 참가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대건산악회 : 매주 화요일/문의 : 510-847-3014
- \* 사목/평협회의 : 7월 13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대건산악회 7월 특별산행 안내

일시 : 7월 15일(화) 아침 8시까지 성당 주차장 집합  
장소 : Muir Woods National Monuments  
지참물 : 참가비 \$10, 점심, 음료수 및 등산도구 각자 지참  
문의 : 510-847-3014

◆ 뜨락회 피정

일시 : 7월 19일(토) 9시 30분 - 7월 20일(일) 3시  
장소 : St. Francis Retreat, San Juan Bautista  
주제 :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문의 : 광재화 다미아노 510-828-3424  
안해준 야고보 415-730-0653

◆ 빈첸시오 홀리스 식사 제공 봉사

일시 : 7월 24일(목) 오후 4시  
\* 봉사해 주실 분은 친교실 게시판에 있는 싸인업 양식에 기재해 주십시오.

◆ 대건장학회 신청 접수(친교실)

신청일시 : 6월 8일 ~ 7월 27일  
장학금 수여식 : 8월 17일  
문의 : 허석진 프란치스코 510-406-0588  
oakcc.scholarship@gmail.com

**7월 구역모임 고린도전서 9-10장**

|        |             |                        |
|--------|-------------|------------------------|
| 1 구역   | 7월27일(일) 6시 | 최재준 토마스 맥              |
| 2 구역   | 7월27일(일) 6시 | 김종성 바오로 맥              |
| 6 구역   | 7월19일(토) 6시 | 정병구 베드로 맥              |
| 7-1 구역 | 7월26일(토) 2시 | 파운더스룸                  |
| 7-2 구역 | 7월26일(토) 6시 | 성당 교육관                 |
| 8-1 구역 | 7월26일(토) 5시 | 조진행 바실리오 맥             |
| 8-2 구역 | 7월20일(일) 6시 | UC Village Cross Rd. # |
| 9 구역   | 7월19일(토) 6시 | 신기수 크리스티나 맥            |

◆ 주일학교 여름 캠프

- High School Camp(incoming 10th to 13th graders)  
: July 27 ~ July 30(costs \$180)
- Junior High Camp(incoming 6th to 9th graders)  
: July 30 ~ August 1(costs \$145)
- \* \$20 sibling discount  
문의 : campdirectors@gmail.com

◆ 제 20 차 북가주 성령대회

일시 : 8월 9일(토) 오전 8:30 - 오후 6:00  
주제 :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강사 : 차동엽 로베르토 신부님  
장소 : 새크라멘토 정혜 엘리사벳 한인 천주교회  
참가비 : \$25(Pay to the order of KSCNC)  
접수 : 천종욱 다니엘 510-684-7207  
\* 단체 버스로 가실 분들은 미리 예약하여 주십시오.  
(버스비 : \$10, 환불 불가)

◆ 향심기도 피정

일정 : 8월 15일(금) 저녁 7시 - 8월 17일(일)  
장소 : Danville San Damiano 피정 센터  
지도 : 이승구 신부님(서울교구 향심기도 사목담당)  
비용 : 2인 1실(\$230), 1인 1실(\$280)  
문의 및 신청 : 김명환 안드레아 925-262-7094